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7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고린도후서 · 갈라디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고린도후서 5장 ~ 고린도후서 10장
- 16 1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 24 매일성경묵상 고린도후서 11장 ~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 1장 ~ 갈라디아서 3장
- 32 2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 40 매일성경묵상 시편 30편 ~ 시편 35편
- 48 3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56 매일성경묵상 시편 36편 ~ 시편 41편
- 64 4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72 매일성경묵상 시편 42편 ~ 시편 44편
- 76 부록 심판과 노아

7 July 2013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고린도후서 5장	2 고린도후서 6장	3 고린도후서 7장
7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8 고린도후서 11장	9 고린도후서 12장	10 고린도후서 13장
14	15 시편 30편	16 시편 31편	17 시편 32편
21	22 시편 36편	23 시편 37편	24 시편 38편
28	29 시편 42편	30 시편 43편	31 시편 44편

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고린도후서 8장

5 고린도후서 9장

6 고린도후서 10장

11 갈라디아서 1장

12 갈라디아서 2장

13 갈라디아서 3장

18 시편 33편

19 시편 34편

20 시편 35편

25 시편 39편

26 시편 40편

27 시편 41편

교회 주요일정

7월 7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나의 주요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감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출 32:4).
이후 사사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삿 2:11~12).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겔 5:9).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갈 1:7).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딤후 2:5).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2013년 7월을 빛이 되게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 사신이 되에(20절) : '사신'은 파견되는 대표자였는데, 화목을 호소하는 문맥에서 바울은 사신으로서 고린도인에게 왕 되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라고 권한다. 황제들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을 응징에 처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나"(고후 4:16)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2절). 그 이유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1절).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14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17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20절). 우리의 겉 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은 주님과 화목하는 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신의 이해의 수준으로 주님을 이해하거나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후 5:4)

For while we are in this tent, we groan and are burdened, because we do not wish to be unclothed but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so that what is 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2 Cor. 5:4)

기도제목

① 겸손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

화요일

고린도후서 6장
찬송가 535장

묵상노트

무엇이 은혜일까요? 성경은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4~7절).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8~10절).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16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현실,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 한 가운데서 은혜를 헛되어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 6:2}

• **벨리알(16절)**: 사탄을 가리키는 또 다른 유대식 명칭이다

기도제목

① 주님이 필요 없다 말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겸손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3

수요일

고린도후서 7장
찬송가 407장

묵상노트

함께 죽고 함께 살게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2절).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3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교만하다고 말합니다(고전 5:2). 이에 고린도 교회는 근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8절). 그 이유는 그들의 회개로 인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9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평화로워야 하며, 사랑으로 덮여주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위험한 길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권면과 징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회개가 필요 없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면하지 않았고, 근심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관계는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십자가의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1절): 더럽히지 않은 육체는 의식법에 따른 순수함을 가리켰대소를 씻는 것이나 의식적인 침수 등, 여기서 바울은 몸뿐 아니라 영의 깨끗한, 즉 죄를 멀리하는 것도 가리킨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후 7:3)

I do not say this to condemn you; I have said before that you have such a place in our hearts that we would live or die with you.(2 Cor. 7:3)

기도제목

① 우리의 모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임이 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며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감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풍성한 연보

4

목요일

고린도후서 8장

찬송가 50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합니다(2절).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3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헌금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위함이었 습니다(7절).

헌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이 바로 헌금입니다. 돈을 내는 부분만 없다면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마 6:24).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돈이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꼈도다”(딤후 6:10).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십일조와 각종 복적이 있는 예물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후 8:2)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their overflowing joy and their extreme poverty welled up in rich generosity. (2 Cor. 8:2)

• **보충함(14절)** : 고린도는 매우 번영한 곳이었 고 그곳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난해지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만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다른 존재가 그들을 보충할 것이 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충분히 보충하신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5

금요일

고린도후서 9장
찬송가 317장

묵상노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

바울은 헌금(연보)에 대한 설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임을 알기 때문이며(딤후 6:10),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드림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역지가 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2~5절).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예물이고, 역지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역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7절). 주님께 드린 예물은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사였습니다(8~15절).

헌금은 우리의 정성을 바쳐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종종 정함이 없이 인색함으로 드리기 마련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잠 21:2).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역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즐거 내는 재(7절)** : ‘즐거’에 해당하는 단어는 유대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었다.

• **씨와 먹물 양식을 주시는 이(10절)** :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셔서 그들이 계속 해서 베풀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더 큰 의의 열매를 받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고후 9:5)

So I thought it necessary to urge the brothers to visit you in advance and finish the arrangements for the generous gift you had promised. Then it will be ready as a generous gift, not as one grudgingly given. (2 Cor. 9:5)

기도제목

① 인색함으로나 역지로 정함이 없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6

토요일

고린도후서 10장
찬송가 148장

묵상노트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그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하신 권세가 아닌 세우려고 한 권세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세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8~10절). 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말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4절).

육신을 신임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남과 비교하는 육신을 신임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며(12절), 결국에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주님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사 53:2).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육신을 신임한다면, 외모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17절).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후 10:7)

You are looking only on the surface of things. If anyone is confident that he belongs to Christ, he should consider again that we belong to Christ just as much as he. (2 Cor. 10:7)

•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2절) : 바울의 존엄한 사신은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이 너무 온유하다고 고린도인들은 불평했다. 헬라의 문화는 온유함을 덕으로 여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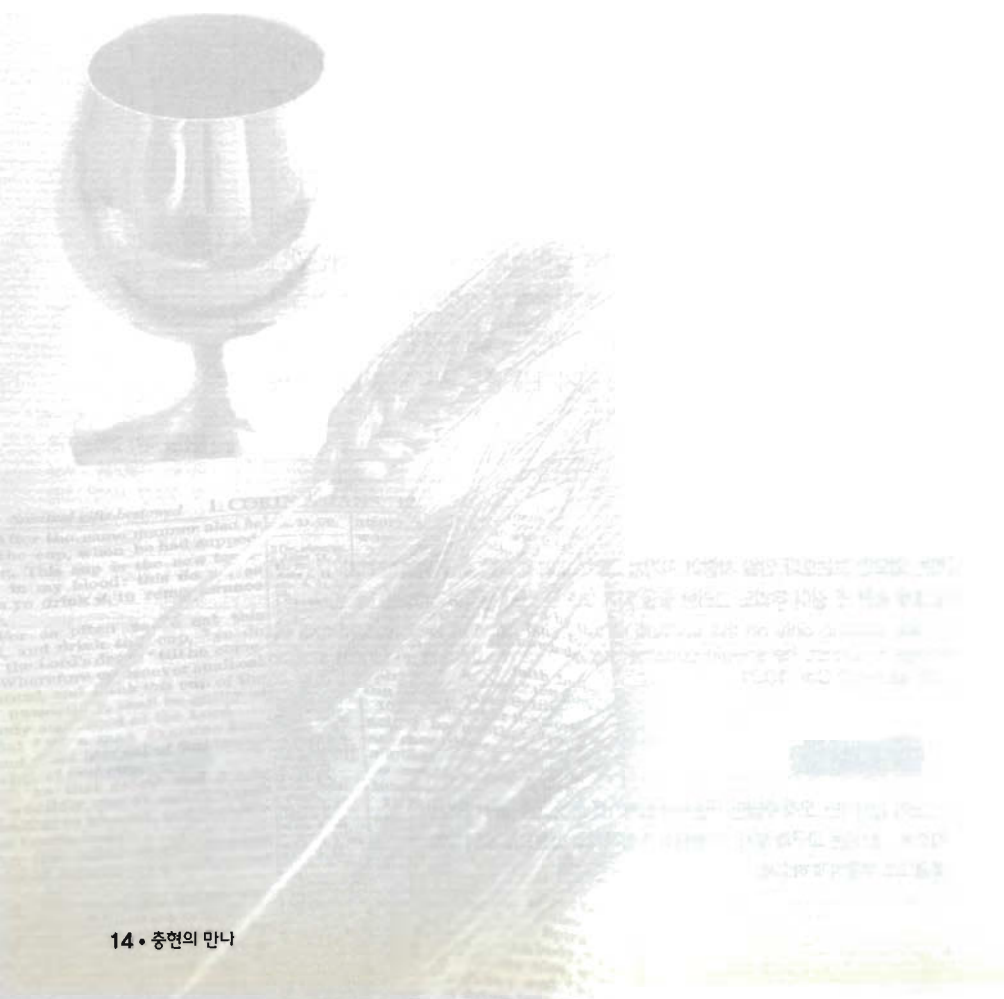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번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 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살전 5:18).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이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진실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단순한 곡식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첫 해부터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이 절기는 단순히 땅의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옮겨진 삶 자체가 열매이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은총의 땅으로 옮겨진 것을 열매로 간주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 신자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엡 2: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1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 초점 |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본문 | 시편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7 주일

8 월요일

☐ 고린도후서 11장

9 화요일

☐ 고린도후서 12장

10 수요일

☐ 고린도후서 13장

11 목요일

☐ 갈라디아서 1장

12 금요일

☐ 갈라디아서 2장

13 토요일

☐ 갈라디아서 3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의 본문은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원래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출 23:16 _____

출 34:22 _____

민 28:26 _____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한편 맥추절은 ‘초실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하여 ‘칠칠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명칭으로 사용된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토를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출애굽하여(출 13:16)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 15:24, 16:2, 17:3)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부정적이고 부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민 11:33~34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제도로 마련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온전한 태도인 감사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배의 핵심인 감사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하였다면, 시편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절대적인 반응이요 마땅한 태도입니다.

시 30:4 _____

시 57:9 _____

시 107:1 _____

참된 예배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수, 즉 감사를 대신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든 제사 때마다 늘 감사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보다 더 큰 보답은 없습니다. 감사는 바다로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신약 교회에 충만한 감사

초대 교회의 제자들과 신자들의 마음에 충만했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롬 1:8 _____

롬 15:9 _____

고전 15:57 _____

고후 2:14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전해준 은혜는 그들을 진정한 감사와 감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가 감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3:16 ; 롬 3:24, 8:26 ; 엡 5:2)

감사는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에 대한 유일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오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 6:51 _____

고전 11:25 _____

벧전 1:18~1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소서.
-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설교노트

15회방식 을것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이다.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법이다.

8

월요일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찬송가 536장

묵상노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마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현실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3절).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잘 용납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1~6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30절). 자신이 도망나온 사실을 자랑합니다(32~33절).

어느 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신의 좋은 점만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가 당하는 최고의 수치스런 처형 방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으며, 그 자손들은 수도 없이 그런 수치스러움을 대대로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우리 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며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 **어리석은 것(1절)** :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어리석은 체하지만, 실상은 그의 대적들이야말로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진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If I must boast, I will boast of the things that show my weakness. (2 Cor. 11:30)

기도제목

① 나의 자랑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너무 자만하지 않게

9

화요일

고린도후서 12장
찬송가 149장

묵상노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2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3절)라는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2~4절). 이 환상과 계시의 특별함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5~6절). 왜냐하면 자신이 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7~9절). 믿음의 놀라움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받음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성공함을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만하게 되는 엄청난 죄악의 길이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충분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들으며 겸손히 주님만 따르십시오. 주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7)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because of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there was given me a thorn in my flesh, a messenger of Satan, to torment me. (2 Cor. 12:7)

• 그리스도의 능력(9절) :
바울은 그의 대적들처럼 자신이 행한 기적들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했다.

기도제목

- 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고 말합니다(고후 12:14).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고후 12:16).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습니다(고후 12:20).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능력과 권능이 있다 여겼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당으로 이어졌습니다(고전 1:13).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4일이 안 되어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세상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안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넘어지며 주님을 배신할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후 13:5)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Do you not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unless, of course, you fail the test?(2 Cor. 13:5)

• **약하심으로(4절)** :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고린도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교적인 문화처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보다는 연세와 기적 행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던 수사학이나 기적적인 능력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다른 복음은 없나니

11

목요일

갈라디아서 1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가 서두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1~6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7절).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음을 교란하게 하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7~10절).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과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Evidently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and are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Gal. 1:7)

• 이상하게 여기노라(6절) : 책망의 서신, 특별히 좀 더 가혹한 형태의 책망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바울의 독자들은 분명 그가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갈라디아서 2장
찬송가 151장

묵상노트

거짓 형제의 위험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4절)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11절). 각자의 사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20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16절)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임을 말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21절). 바울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아닌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 거짓 형제들(4절) :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받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 2:20)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내가 아닌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도의 어리석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3절). 모두가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업적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발했습니다(2,5,10절). 율법의 행위는 자신의 사명을 모두 잘 감당했다는 안심함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도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그것이 옳지 않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며(6절), 행위로 구원이 성취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11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23,25절).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롬 1:17). “나는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소중함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율법을 믿고 계십니까? 자신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You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Before your very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Gal. 3:1)

• **꾀더냐(3절)** : ‘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는 마술 주문의 악한 영향력이나, ‘악한 눈’ 곧 마술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사물에 찬, 저주를 발한다.

기도제목

- 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소서.
- ② 참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혼들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신앙의 시작

처음 가는 선교여서 많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한 채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안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에 감사와 설렘으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그 마을 주위는 다 모슬렘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희를 그 모슬렘들 속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하여 보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끝내고 집에 오니 처음에는 가기 두려운 선교였으나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리워지는 선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 중에서도 꼭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던 영혼들이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선교 현장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한 팀원들과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같이 선교를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선교를 다시 가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대학부)

2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 찬 송 |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본 문 | 요한복음 10:11~18

¹¹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¹²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¹³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¹⁴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¹⁵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¹⁶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¹⁷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¹⁸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4 주일

15 월요일
□ 시편 30편

16 화요일
□ 시편 31편

17 수요일
□ 시편 32편

18 목요일
□ 시편 33편

19 금요일
□ 시편 34편

20 토요일
□ 시편 35편

구약성경에 나타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 받습니다. 우선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밀접하고 익숙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늘 양을 돌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창세기 47:3, 시편 23:1, 이사야 40:11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선한 목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겔 34:15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샅꾼과 대조시킴으로써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와 샅꾼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기꺼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와 정반대의 개념인 샅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 56:11

겔 34:8

※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것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1.

2.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요 10:14~15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까닭에 우리에게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도무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양들이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히 4:15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는 없으시니라

사 53:6 / 우리는 다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는 자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요 10:24~27 /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_____

_____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_____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은 누구입니까?

갈 2:20 _____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며 영생으로 이끄시는, 선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오라고 말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정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준 그의 십자가만이 선택 목자가 보여 준 진리입니다. 선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 10:10 _____

계 7:1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선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오직 믿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가 십자가로 충만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15

월요일

슬픔이 기쁨으로

시편 30편
찬송가 95장

묵상노트

시인은 깊은 좌절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고쳐 주시며 자신의 영혼을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1~3절).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는 형통할 때에 누가 그를 산같이 세우셨는지 잊었고,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을 평생 주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합니다(4~10절). 주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에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11~12절).

다윗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으로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그를 다시 회복 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의 삶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무덤(3절)** : 웅덩이. 여기서는 죽음의 장소라는 뜻으로 무덤으로 번역되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

For his anger lasts only a moment,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weeping may remain for a night, but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Ps. 30:5)

기도제목

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는 내 하나님이라

16

화요일

시편 31편

찬송가 570장

묵상노트

다윗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영을 의탁하며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은 그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서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1~8절).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의 고통과 슬픔과 대적들에게 당하는 육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9~13절).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하든 그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주의 사랑이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14~18절).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19~20절). 그는 부르짖을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21~24절).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다가온 가장 강력한 위협 앞에서 그는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14절). 다윗의 이런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시 31:23)

Love the LORD, all his saints! The LORD preserves the faithful, but the proud he pays back in full. (Ps. 31:23)

• 깨진 그릇(12절) : 쓸모없게 되어 버림받은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다윗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마음이 간사함이 없으며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단언합니다(1~2절).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셔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여호와께 아뢰고 숨기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3~5절). 그러므로 다윗은 경건한 자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에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6~7절). 다윗은 악인에게에는 슬픔이 있을 뿐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10~1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중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는 그를 짓눌렀고 죄로 인한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제사를 잘 드리고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짜 악인이며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역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 말, 노새(9절) : 미련하고 완고한 짐승.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을 비유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시 32:5)

Then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did not cover up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 and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Selah (Ps. 32:5)

기도제목

①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새 노래로 찬양하라

18

목요일

시편 33편

찬송가 304장

묵상노트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1~3절).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충만하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으므로 시인은 온 땅과 만민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4~8절). 그는 여호와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여호와와 계획만이 영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9~11절). 시인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도 얻지 못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2~19절).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바라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20~22절).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시편 33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4~19절).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 주셨을 때만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시 33:1)

Sing joyfully to the LORD, you righteous; it is fitting for the upright to praise him. (Ps. 33:1)

• 정직한 자(1절) : 죄를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한다.

기도제목

① 늘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시편 34편
찬송가 300장

묵상노트

다윗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1~7절).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악을 금하고 거짓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말합니다(8~14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단언합니다(15~18절). 다윗은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에게 피하길: 자는 모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19~22절).

이 시에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삼상 21:10~15)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피했지만, 그곳에서조차 미친 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인생의 풍량이 한 번만 일어나도 힘이 드는데 하나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문제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 **맛보애(8절)**: 마음으로 인식하다, 경험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대시(시 34:18)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Ps. 34:18)

기도제목

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20

토요일

시편 35편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1~3절). 자신의 대적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고 뒤쫓고 결국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4~8절). 그 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9~10절). 다윗은 그의 대적들을 친구나 형제같이 대했지만 그들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고 그가 넘어질 때 기뻐하며 다윗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11~16절).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공격과 보락 가운데서 주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17~21절). 그는 주께서 공의로 그를 판단하시고 원수들이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22~25절). 또 그의 대적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그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스로 종일 주님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26~28절).

다윗은 많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생명은 그의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룬 모든 공적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원수의 공격에서 그의 종(27절)인 자신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시 35:23)
Awake, and rise to my defense! Contend for me, my God and Lord.(Ps. 35:23)

•어머니를 고향 같이(14절)
: 고대 근동에서는 어머니와의 차별이 가장 비통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기도제목

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의 자랑, 십자가

사람들이 둘 이상만 모이면 다양한 자랑들로 시끄럽다. 좋은 집, 새 차, 승진, 자녀, 외모 등등.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드러내는 것에 급하여 십자가를 드러낼 시간이 없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6).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할 나의 입이 세상 자랑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나의 눈이 안목의 정욕으로 충혈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남아있을 자랑이 나에게 있는가?

코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152]

코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153]

코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코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3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 찬 송 |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본 문 | 요한복음 11:17~26

¹⁷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¹⁸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¹⁹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²⁰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²¹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²²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²³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²⁴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²⁵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²⁶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1 주일

22 월요일
□ 시편 36편

23 화요일
□ 시편 37편

24 수요일
□ 시편 38편

25 목요일
□ 시편 39편

26 금요일
□ 시편 40편

27 토요일
□ 시편 41편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모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의로운 죄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즉 죽음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입니다.

창 3:19 _____

히 9:27 _____

롬 5:12 _____

죽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죽음이라는 문턱에 이르러서야 죽음의 존재가 실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심지어는 의지와도 상관없이 죽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허구처럼 느껴졌던 죽음이 라는 실체가 그의 주변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죽음의 실체를 체험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겠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다르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요 11:6).

요 11:3~4 _____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요 11:14). 나사로의 죽음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고통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요 11:21,35). 이때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요 11:25~26 _____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은 두 가지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와 '살아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심각한 차별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놀라운 은혜,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차별입니다. 믿음이 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 빈칸을 채우세요.

□□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의 형벌이요 법칙이지만, □□은 이러한 공평한 법칙으로부터 차별이 생기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에 이르게 하는 차별이 있는 것이다.

믿음의 차별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죽음의 권세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으며,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진실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인생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 처한 인생이 이 땅에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고전 15:55~57 _____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부활과 영생의 은총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은총은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요 11:26 / 무릇 ☐☐☐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생전의 믿음의 고백이 죽음 이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선언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매우 긴박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일도 동일하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이기도 합니다.

고후 6:2 _____

계 2:21 _____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과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영생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진실로 기회와 때가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전 15:14,17 _____

벧전 1:3~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2007年12月29日

© 2000 Blackwell Science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7: 111–118

1990-1991 年, 中国对日本出口货物中, 机电产品占 40.2%, 农产品占 32.1%, 轻工业品占 27.7%。1991-1992 年, 中国对日本出口货物中, 机电产品占 41.1%, 农产品占 31.1%, 轻工业品占 27.8%。1992-1993 年, 中国对日本出口货物中, 机电产品占 41.1%, 农产品占 31.1%, 轻工业品占 27.8%。

2019年12月14日 星期六

10-15 2007-08-27 10:00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18:45 19:00 19:15 19:30 19:45 20:00 20:15 20:30 20:45 21:00 21:15 21:30 21:45 22:00 22:15 22:30 22:45 23:00 23:15 23:30 23:45 24:00 24:15 24:30 24:45 25:00 25:15 25:30 25:45 26:00 26:15 26:30 26:45 27:00 27:15 27:30 27:45 28:00 28:15 28:30 28:45 29:00 29:15 29:30 29:45 30:00 30:15 30:30 30:45 31:00 31:15 31:30 31:45 32:00 32:15 32:30 32:45 33:00 33:15 33:30 33:45 34:00 34:15 34:30 34:45 35:00 35:15 35:30 35:45 36:00 36:15 36:30 36:45 37:00 37:15 37:30 37:45 38:00 38:15 38:30 38:45 39:00 39:15 39:30 39:45 40:00 40:15 40:30 40:45 41:00 41:15 41:30 41:45 42:00 42:15 42:30 42:45 43:00 43:15 43:30 43:45 44:00 44:15 44:30 44:45 45:00 45:15 45:30 45:45 46:00 46:15 46:30 46:45 47:00 47:15 47:30 47:45 48:00 48:15 48:30 48:45 49:00 49:15 49:30 49:45 50:00 50:15 50:30 50:45 51:00 51:15 51:30 51:45 52:00 52:15 52:30 52:45 53:00 53:15 53:30 53:45 54:00 54:15 54:30 54:45 55:00 55:15 55:30 55:45 56:00 56:15 56:30 56:45 57:00 57:15 57:30 57:45 58:00 58:15 58:30 58:45 59:00 59:15 59:30 59:45 60:00 60:15 60:30 60:45 61:00 61:15 61:30 61:45 62:00 62:15 62:30 62:45 63:00 63:15 63:30 63:45 64:00 64:15 64:30 64:45 65:00 65:15 65:30 65:45 66:00 66:15 66:30 66:45 67:00 67:15 67:30 67:45 68:00 68:15 68:30 68:45 69:00 69:15 69:30 69:45 70:00 70:15 70:30 70:45 71:00 71:15 71:30 71:45 72:00 72:15 72:30 72:45 73:00 73:15 73:30 73:45 74:00 74:15 74:30 74:45 75:00 75:15 75:30 75:45 76:00 76:15 76:30 76:45 77:00 77:15 77:30 77:45 78:00 78:15 78:30 78:45 79:00 79:15 79:30 79:45 80:00 80:15 80:30 80:45 81:00 81:15 81:30 81:45 82:00 82:15 82:30 82:45 83:00 83:15 83:30 83:45 84:00 84:15 84:30 84:45 85:00 85:15 85:30 85:45 86:00 86:15 86:30 86:45 87:00 87:15 87:30 87:45 88:00 88:15 88:30 88:45 89:00 89:15 89:30 89:45 90:00 90:15 90:30 90:45 91:00 91:15 91:30 91:45 92:00 92:15 92:30 92:45 93:00 93:15 93:30 93:45 94:00 94:15 94:30 94:45 95:00 95:15 95:30 95:45 96:00 96:15 96:30 96:45 97:00 97:15 97:30 97:45 98:00 98:15 98:30 98:45 99:00 99:15 99:30 99:45 100:00 100:15 100:30 100:45 101:00 101:15 101:30 101:45 102:00 102:15 102:30 102:45 103:00 103:15 103:30 103:45 104:00 104:15 104:30 104:45 105:00 105:15 105:30 105:45 106:00 106:15 106:30 106:45 107:00 107:15 107:30 107:45 108:00 108:15 108:30 108:45 109:00 109:15 109:30 109:45 110:00 110:15 110:30 110:45 111:00 111:15 111:30 111:45 112:00 112:15 112:30 112:45 113:00 113:15 113:30 113:45 114:00 114:15 114:30 114:45 115:00 115:15 115:30 115:45 116:00 116:15 116:30 116:45 117:00 117:15 117:30 117:45 118:00 118:15 118:30 118:45 119:00 119:15 119:30 119:45 120:00 120:15 120:30 120:45 121:00 121:15 121:30 121:45 122:00 122:15 122:30 122:45 123:00 123:15 123:30 123:45 124:00 124:15 124:30 124:45 125:00 125:15 125:30 125:45 126:00 126:15 126:30 126:45 127:00 127:15 127:30 127:45 128:00 128:15 128:30 128:45 129:00 129:15 129:30 129:45 130:00 130:15 130:30 130:45 131:00 131:15 131:30 131:45 132:00 132:15 132:30 132:45 133:00 133:15 133:30 133:45 134:00 134:15 134:30 134:45 135:00 135:15 135:30 135:45 136:00 136:15 136:30 136:45 137:00 137:15 137:30 137:45 138:00 138:15 138:30 138:45 139:00 139:15 139:30 139:45 140:00 140:15 140:30 140:45 141:00 141:15 141:30 141:45 142:00 142:15 142:30 142:45 143:00 143:15 143:30 143:45 144:00 144:15 144:30 144:45 145:00 145:15 145:30 145:45 146:00 146:15 146:30 146:45 147:00 147:15 147:30 147:45 148:00 148:15 148:30 148:45 149:00 149:15 149:30 149:45 150:00 150:15 150:30 150:45 151:00 151:15 151:30 151:45 152:00 152:15 152:30 152:45 153:00 153:15 153:30 153:45 154:00 154:15 154:30 154:45 155:00 155:15 155:30 155:45 156:00 156:15 156:30 156:45 157:00 157:15 157:30 157:45 158:00 158:15 158:30 158:45 159:00 159:15 159:30 159:45 160:00 160:15 160:30 160:45 161:00 161:15 161:30 161:45 162:00 162:15 162:30 162:45 163:00 163:15 163:30 163:45 164:00 164:15 164:30 164:45 165:00 165:15 165:30 165:45 166:00 166:15 166:30 166:45 167:00 167:15 167:30 167:45 168:00 168:15

1990-1991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7 12:18:06:10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

[!\[\]\(655ea66d8c7b706520595b3b0c9fb34a_img.jpg\)](#)
[!\[\]\(846198f3f3b92e23665fb4f46cd66e6f_img.jpg\)](#)
[!\[\]\(9e55125263f2740bc74307549d25ef34_img.jpg\)](#)

충현의 만니)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중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중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시편 36편
찬송가 413장

묵상노트

다윗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며, 그 입에는 죄악과 속임뿐이며 악한 길에 선다고 말합니다(1~4절).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산과 같고, 심판은 바다와 같아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며 그들은 주의 복락으로 풍족할 것입니다(5~8절).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선언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과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들에게서 지키시며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9~12절).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악을 행합니다. 세상은 이런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모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려 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구원을 자신의 의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구원을 이루고 악한 세대에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고,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 하나님의 산들(6절) :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표현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For with you is the fountain of life; in your light we see light. (Ps. 36:9)

기도제목

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23

화요일

시편 37편

찬송가 390장

묵상노트

다윗은 속히 사라질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며,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분노를 그치라고 권면합니다(1~8절). 그는 또 악인은 망할 것이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의인을 치려하지만 주께서 비웃으실 것이며, 악인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라 말합니다(9~15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멸망하며 연기가 되어 없어지고 끊어질 것이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지켜 주셔서 환난에도 견디고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며 넘어져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16~26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27~31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이 되시며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실 것이므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32~40절).

다윗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여서 세상에서 잠시 번성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이 득세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여서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잠시 잘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복인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요 17:3).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시 37:39)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comes from the LORD; he is their stronghold in time of trouble. (Ps. 37:39)

• 정오의 빛(6절): 가장 분명하고 환한 빛이다.

기도제목

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24

문제의 해결자

수요일

시편 38편
찬송가 337장

묵상노트

다윗은 주께서 노하셔서 징계받는 것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고 탄원합니다. 그의 육체가 피곤하고 상하여 슬픔과 불안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1~8절). 그의 기력이 쇠하고 친구들이 떠나고 그를 해하려는 자가 음모를 꾸미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고 할 말이 없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9~16절). 그는 자신의 죄를 아뢰고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17~22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질병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원수들의 음모로 인해 더욱 깊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대답입니다.

•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7절) : 모든 힘과 생령력이 박탈당했다는 의미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시 38:21~22)

O LORD, do not forsake me; be not far from me, O my God. Come quickly to help me, O Lord my Savior. (Ps. 38:21~22)

기도제목

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25

목요일

시편 39편

찬송가 288장

묵상노트

스스로의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 침묵하기로 결단하였지만 마음에 근심이 더하여 견딜 수 없게 된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4절). 그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고 결국 그림자 같아서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5~6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징벌을 자신에게서 옮겨 주시기를 구합니다(7~10절).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2~13절).

다윗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의 유한함과 짧음을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깨달음은 깨달음에서 끝이 날 뿐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연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짧고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7절). 인생의 길이는 참으로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이 사람의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의 영원한 삶이 은총과 영광의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But now,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Ps. 39:7)

• 그림자(6절) : 환영, 착각, 곧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허무한 실존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인생의 짧음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40편
찬송가 432장

묵상노트

기다리고 기다리자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자신을 반석 위에 두신 여호와를 다윗은 세 노래로 찬양하며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1~3절).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기적과 생각의 풍성함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노래합니다(4~5절). 그는 주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기에 주의 뜻을 즐겨 행하고 주의 법을 마음에 담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6~10절). 다윗은 주님께 공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길 구합니다(11~15절). 그는 주를 찾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와 의 위대함을 높이게 해 달라고 구하며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속히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6~17절).

다윗은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계속 빠져 들어가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과거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수렁(2절) : 빠져 나올 수 없는 곤경, 반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시 40:17)

Yet I am poor and needy; may the Lord think of me.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O my God, do not delay. (Ps. 40:17)

기도제목

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1~3절).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악담하며 거짓을 말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모의하며, 그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대적하고 있음을 한탄합니다(5~9절).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10~13절).

무겁고 고통스러운 병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윗이 죽음에 가까운 것을 보고 기뻐하며 심지어 그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배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욥 23:10).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두려움이 사라진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시 41:4)

I said, "O LORD, have mercy on me; heal me,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 (Ps. 41:4)

• 발꿈치를 들다(9절) : 반역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관용구이다.

기도제목

- ① 고통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Bible Panorama

성경파노라마

통일
왕국
시대

인물	시대(B.C)	비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 잇도	1075 ~ 1000	미스바 대성회를 주도,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다윗의 간음을 책망 다윗의 인구 조사를 책망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건립을 예언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아히야		여로보암의 멸망 예언 요시아의 탄생 예고	왕상 14:6~16 왕상 13:3
예후 엘리아		우상 숭배자 바아사의 멸망 예언 아합의 멸망 예언, 죽지 않고 승천	왕상 16:2~4,7 왕상 21:20~26 왕하 2:7~12
미가야 엘리사		아합의 죽음 예언 아합가의 멸망을 예언, 각종 기적을 행하고 죽은 후에도 죽은 이를 살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존하는	왕상 22:19~28 왕하 4:8~37, 9:6~10, 13:20 호 7:8~16
호세아	764~724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	
아모스 요나	760~755 793~753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 니느웨에 심판을 선언, 이스라엘의 부흥 예언 베가에게 유대인 포로 석방 요구	암 9:1~15 왕하 14:25 ; 온 3:1~4 대하 28:9~13
오벧			

포로
시대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다니엘	593~570 586~583 627~586 605~536	유다와 열방의 멸망, 유다의 회복 예언 에돔의 멸망 예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열방의 멸망 예언 네 국가와 70이레에 관한 예언	
---------------------------	--	--	--

귀환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	520~519 520~475 435~425	성전 재건 촉구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흥 도모 메시아의 임재 예언	
------------------	-------------------------------	---	--

이스라엘의 주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에는 깊은 섭리가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상과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넷째는,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을 위한 계사장 나라이다(출 19: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시어 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 주셨던 것이다.

고		관련성구	
		삼상 7:5~16, 8:6, 16:13 삼하 12:1~12 삼하 24:11~19 왕상 11:29~39 대하 9:29	
남유다			
스마야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만류	대하 11:1~4
아사랴		아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 촉구	대하 15:1~7
하나니		아사의 이방 외교 정책 책망	대하 16:7~9
예후		여호사밧의 대 이스라엘 정책 책망	대하 19:1~3
아하시엘		모압·압몬 연합군에 대한 승리 예언	대하 20:14~17
엘리에셀		여호사밧의 아하시야와 교제를 책망	대하 20:37
엘리야		여호람에게 창자가 빠지는 죽음 예언	대하 21:11~15
스가랴		요아스의 우상 숭배 책망	대하 24:20
요엘	835~796	성령 감람을 예언	울 2:28
이사야	740~680	열방과 유다의 멸망 예언 메시아 탄생과 사역 예언	사 13~23, 49~53장
미가	740~695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	미 1:9~16
나훔	608~630	앗수르의 멸망 예언	나 2:8~13
하박국	608~597	바벨론의 멸망 예언	합 2:4~7
여두둔		요시아 왕과 함께 유월절 복구	대하 35:15
홀다		유다의 멸망 예언	왕하 22:15~20
스바냐	640~630	여호와 날의 심판 예언	습 1:14~16
예레미야	627~586	시드기야에게 유다의 멸망 예언	렘 34:2~5
			겔 12:8~16 욥 1:18 렘 50:1~5 단 7:1~12:13
			학 1:1~15 속 7:8~14 말 3:1~4:6

4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 찬 송 |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본문 | 요한복음 13:36~14: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㉒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㉓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㉕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㉖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㉗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8 주일

29 월요일

□ 시편 42편

30 화요일

□ 시편 43편

31 수요일

□ 시편 44편

1 목요일

□ 갈라디아서 4장

2 금요일

□ 갈라디아서 5장

3 토요일

□ 갈라디아서 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로서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마치고 난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떠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3:1 _____

요 13:21 _____

요 13:33 _____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곳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요 13:37, 14:5). 결국 주님께서 가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과 의구심에 대하여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선언을 하시기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드
러나고 있습니다(출 3:12, 12:31, 14:4). 출애굽 시 있었던 홍해 사건에 대하여 구
약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양합니다.

수 2:10 _____

시 136:13 _____

사 51:10 _____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권능
으로 바닷물을 말리고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에 위협당하고 있는 인생들
에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히
10:19~20).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

1978년 8월 10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입니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진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길' 이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보자' 에 초점을 맞추었
다면, '진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밀에 싸여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는 중보자' 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 1:14 _____

롬 1:22 _____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셨고, 마
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완성하
셨습니다.

사 2:3 _____

요 8:31~32 _____

하나님의 생명의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보자이십니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는 증보자이
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본성입니다.

시 36:9 _____

요 1:4 _____

요일 1:1~2 _____

골 3:4 _____

영원한 생명은 결코 인간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
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 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5:12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행 4:12 _____

살전 5: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 2000 Blackwell Science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7: 399–406

1997年12月27日 星期一 晴

시편 42편
찬송가 505장

묵상노트

시인은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사슴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또 전에 성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겠노라고 말합니다(1~5절). 그는 영혼에 낙심이 찾아왔지만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그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되었고 또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6~10절). 그는 오직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1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잠 8:17).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은 시냇물을 찾은 사슴의 기쁨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클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죄악으로 어쩔 수 없는 기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 갈급함 같이(1절) : 울부
짖으며 찾음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O God. (Ps. 42:1)

기도제목

- ① 어쩔 수 없는 기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소서.
-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30

화요일

시편 43편

찬송가 607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인은 강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심에도 원수의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그를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그곳에서 지금보다 훨씬 부요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구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3:5)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Ps. 43:5)

• 버리셨나이까(2절) : 거절하다, 꽃아버리다. 혐오와 역겨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기도제목

- 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시편 44편
찬송가 393장

묵상노트

시인은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1~3절).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합니다(4~8절). 그러나 주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고 욕을 당하게 하셨으며 대적들에게 그들을 넘기시고 흠으셨다고 한탄합니다(9~12절). 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모욕과 수치가 종일 자기의 얼굴을 덮었다고 탄식합니다(13~16절).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지만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17~19절).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 버리지 않았지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20~22절).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자신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압제당함을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23~26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보다 앞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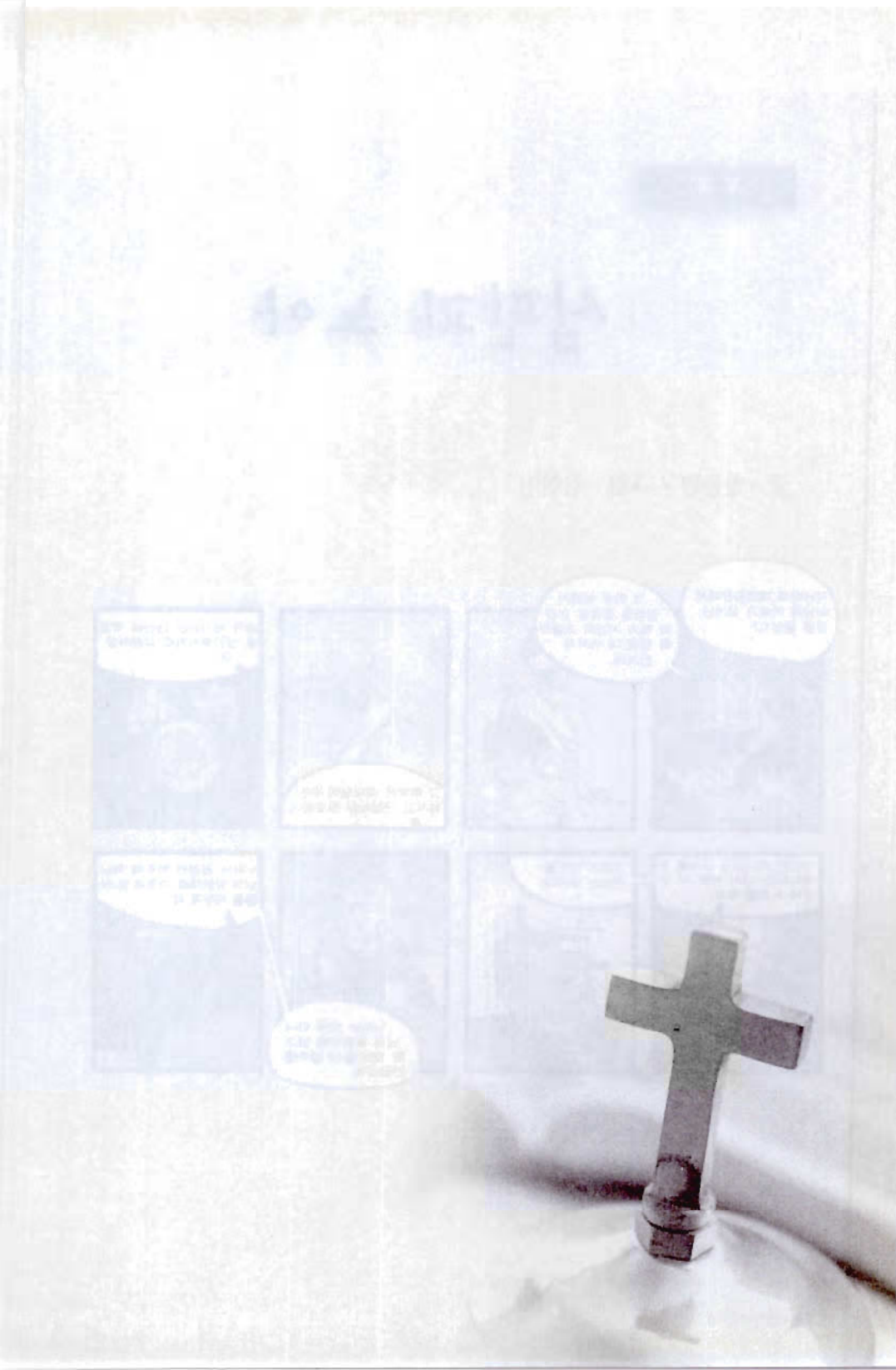
• **송냥이의 처소(19절)** : 전적인 파멸의 장소, 극단적으로 황폐화된 곳을 말한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시 44:26)
Rise up and help us; redeem us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Ps. 44:26)

기도제목

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심판과 노아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지난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을 들었지?



그 이후 형제가
살인할 정도로 인간
의 죄가 시간이 흐름수
록 점점 더 커지게
된거야.



그 죄악은 하나님께 한탄
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
어.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신
택하시고, 다시 한번 더 구
원의 기회를 주서.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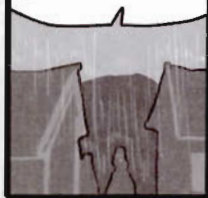


노아는 오직 하나
님의 말씀만을 믿고
약 120년동안 방주를
만들었어.



노아는 완성된 방주에 하나
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동,식
물을 태우게 돼.

그리고 노아가 600세때 하나님은 40일동안 비를 내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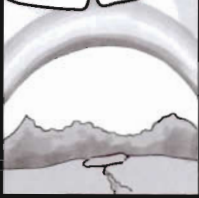
물은 150일동안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행동을 일삼던 사람과 생물은 홍수로 죽고,



약 1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세우시지.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지킨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두셨어.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판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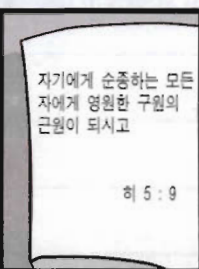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해주는 증표인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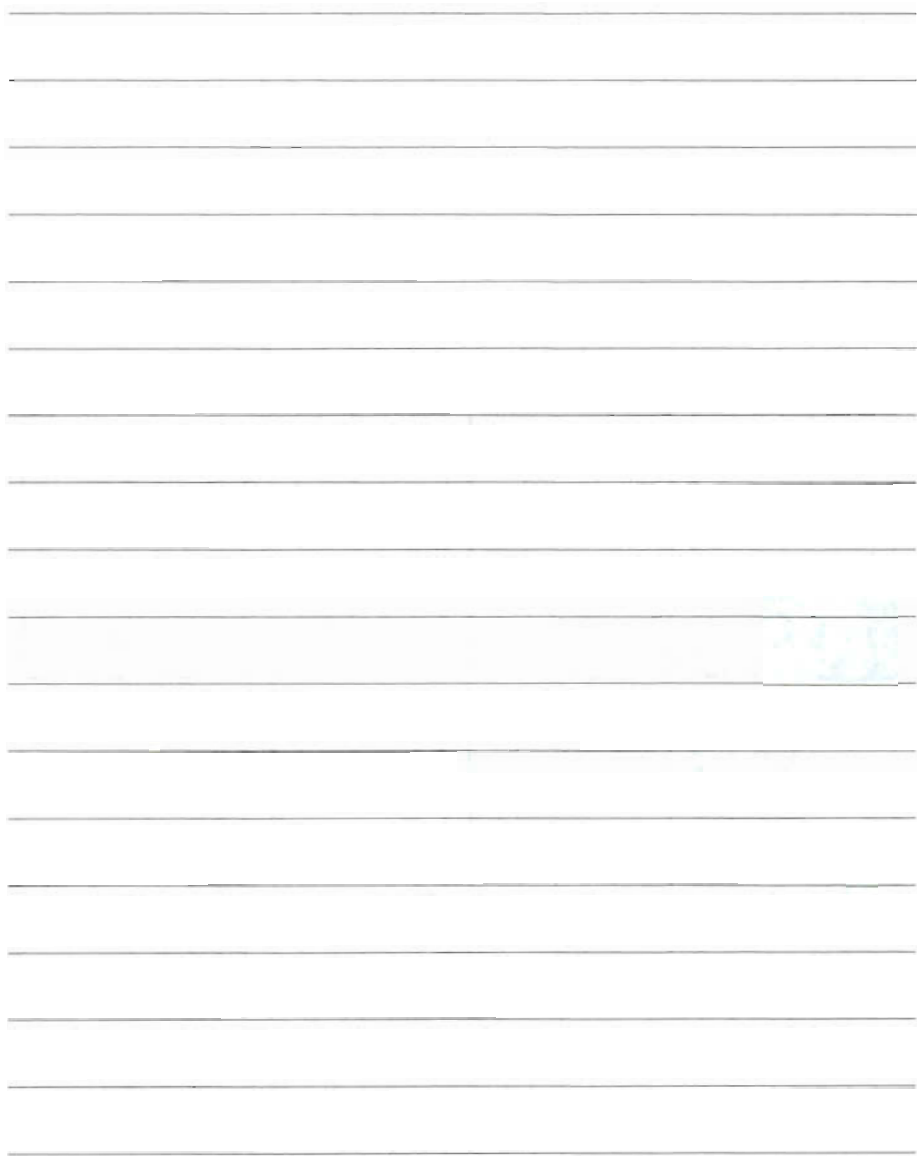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말이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9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7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